

창간 7주년을 축하하며



김 광 희
(농수산부 축산국장)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창간 7주년을 맞이한 「월간양돈」지와 이의 발전에 관계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7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부업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양돈 업계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에따른 축산물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근자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주기적 경기변동과 점진적 전기업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적정생산에 의한 가격안정과 경영개선에 의한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음은 양돈인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과거 관주도형 시책에서 오는 경직성을 과감히 개선하고 생산에서 유통·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자 조직에 의한 자조적 체제를 적극 도입시켜 나갈 방침이며, 축협 또는 기업양돈 업체와 부업농가를 연계한 계열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등 농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다음 사항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하여 축산관측을 더욱 강화·발전시켜 양축농가들의 자율적 생산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필요시는 축산업 등록·허가업체를 통한 수급조절 시책을 적극 추

진해 나가고자 하며,

둘째 : 농가 소득증대와 생산조절 기반구축을 위하여 시범 추진하고 있는 돼지 계열화생산사업은 이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부업 양축농가들이 가격등락에 영향없이 적정소득을 보장받도록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세째 : 시장출하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통출하 및 출하배정제등 조절기능을 확대 보강해 나가고,

네째 : 종돈의 자질을 높이고 생산성 제고에 의한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현재까지 실시해오던 종자돈 생산공급체제를 대폭 개선하여 검정돈 공급체제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자단체의 종돈능력검정 시설을 확대·보강하는 한편 대규모 양돈업체에 대한 자가검정제도를 의무화해 나가고자 한다.

다섯째 : 국내양돈업을 자급에 국한하지 않고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등 소비확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규모 양돈업체의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수출여건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동안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귀지의 역할에 경의를 표하고,앞으로도 양돈농가의 정보지로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선도자로서의 임무를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월간양돈」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양돈인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축매제 역할을



기 정 도

((주)송원축산 대표 · 본회이사)

먼저 창간 7주년을 맞는 「월간양돈」지와 그 관계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축하를 드리고 싶다.

불과 7년이라는 약관의 역사에 지나지 않지만 양돈산업의 지나온 7년은 많은 성장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도성장에 동참해온 월간양돈지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소중한 값진 역사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진데, 우리 양돈산업의 현 위치는 어디쯤 될까?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다 보니 질적인 성장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70년대 우리나라 경제처럼 수출드라이브인 정책에 의한 외형적인 성장에만 급급하다 보니 작금에 와서는 경제구조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가? 우리 양돈산업도 그의 축소판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죠셉 슈페터 교수가 지적한 “대기업이 경제를 장악하고 기업가적 정신을 부숴버리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다”는 경고는 우리 양돈산업과는 거리가 먼 남의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계열생산을 하고 있는 대기업 양돈업자는 시중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더라도 다른 계열에서 보충을 하면 될터이지만 순수 양돈인은 그저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너무 잘 사는

사람도 너무 못 사는 사람도 없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

금후 「월간양돈」지의 역할이나 중요성, 사명감에 대해서는 재삼 강조할 필요도 없겠지만 주문해 보고 싶다.

첫째, 어느 한쪽(대규모 혹은 영세규모)에만 치우치지 않고 우리 양돈인 전체가 대단합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축매역할을 기대해 본다. 소규모 양돈인일지라도 국민건강생활에 꼭 필요한 육류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될때 우리 양돈인들은 단합, 결속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계획하에 안정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국내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내일의 시세등락에만 연연하지 않고 10년·20년을 내다보면서 계획할 수 있게 될때 비로소 양돈산업은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합」과 「장기계획」에 대한 「월간양돈」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월간양돈」지의 창간 7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명실상부한 양돈 전문잡지로서 질적 발전을



한 석 현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장)

1979년 7월 1일 「월간 양돈」이 전국 양돈농가의 반려자로서 태어난 이후 7월로써 창간 7주년을 맞이한데 대해 먼저 그동안의 발전에 대하여 충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지난 7개성상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때로는 생산과잉과, 시장가격의 폭등,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을 당했으며 귀중한 외화로 수입된 사료도 국가경제적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다.

물론 어느때는 시장가격의 폭등으로 양돈산업의 호황을 맞이했을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양돈산업의 호황은 금방 생산과잉현상을 초래하여 가격폭락현상을 초래하였고 전국의 40여만 양돈농가는 생산비도 보상되지 않는 가격선에서 궁박판매를 강요당하였다.

이와같은 과거의 어려움과 시행착오에 대해 몇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자.

첫째는 양돈산업의 시장가격 안정화 문제이다.

물론 생산 및 소비의 조절에 의한 시장가격의 안정문제는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제로 여러가지 어려움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정책목표가 달성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소비촉진책으로 수요증대를 기하고 생산의 계획화 또는 여러가지의 적정생산 유도정책으로 수급을 균형시켜야 하며 이런 점에서 시장가격의 안정화는 조속히 정착되어야 할 주요한 문제이다.

둘째는 생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문제이다.

다른 산업에서와 같이 양돈산업에서도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충분조건은 생산성의 향상이다. 양돈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바로 가축개량문제와 생산과정에서의 경영 합리화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양돈농가로서는 생산비의 절감 또는 최소화와 생산물의 질적·양적 극대화를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국내부존자원을 이용한 자급사료에 의한 양돈산업의 발전방향을 정책당국과 함께 앞으로 우리 양돈인 모두가 계속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는 생산자 단체의 문제이다.

물론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없지 않다.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강하지 못한 대부분의 영세 양돈농가들의 자조·자주정신을 바탕으로 권익이 적극적으로 보호·대변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 양돈농가 스스로의 자조·자주단체가 제대로 육성되었을때 농민들의 모든 경제적 교섭력은 그만큼 커지게 되고 따라서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월간 양돈」지의 창간 7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앞서 말한 몇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더욱 많은 노력이 기울어진다면 더욱 발전된 「양돈」지가 되리라 믿는다. *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대변지로서 완수를



황 금 영
(순천 승주지부장)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경쟁의 물결 속에서 양돈산업에 수고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월간양돈 창간 7 주년을 맞아 양돈협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 해야될 당면문제를 제시코져 합니다.

첫째 : 시료광고와 시료포대에 가격표시

동일한 사료가 금액에서 지역간, 실수요자, 사용량, 거래방법에 따라 상당한차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가격이 모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보장하여 주는 가격인지 의문이 됩니다. 광고는 광고를 위한 광고가 아니라 모두에게 확신을 주고 공익을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시료포대에 사료가격을 표시하고 최고 내지는 최하의 사료효율을 자신있게 제시하는 사료회사 광고를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 시료는 현찰에 의한 공동구입

현금으로 회원여러분이 단합하여 일정톤수 이상을 쓰게되면 10~20% 이상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사료를 외상으로 각자 따로 쓰기 때문에 사료공장에 대한 도의적인 죄의식에 얽매어 돼지출하 일령이 떨어져도 원하는 사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현실 경영 감각이 둔화되어 생산성이 뒤떨어지는 경향으로 이어 지게 됩니다. 양돈소득 향상에 있어 제일 중요하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모든 회전을 향상이나 기타 다른방법 보다 생산원가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절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단합하고 신용으로 공동구입 하게 된다면 불황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지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꼭 찾아야겠습니다.

세째 : 돼지오줌(뇨) 재생산 활용방안

돈분에 왕겨를 섞어서 퇴비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줌은 즉각 처리가 어려워 소하천을 오염 시킴으로서 오수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부양돈가 및 농민 후계자들이 고발 당하는 사례와 비만 오면 불안해 하는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소를 통한 재활용 방법이나, 학문적인 뒷받침이 되는 오줌처리(뇨) 방법의 공모, 외국의 연구발표 또는 잘되고 있는 현장설계, 간편한 사례, 사진등을 연재했으면 합니다.

네째 : 양돈경영 기록체계의 표준화(과학화) 방안

사료곡물의 막대한 량을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에 자원의 손실을 막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묘방은 경영기록의 분석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않거나 익숙하지 못한 양돈인에게 간단하고 손쉽게 손익이나 사양관리 잘못을 알아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록체계가 보급됨으로서 양돈산업은 수출전략을 위한 경쟁품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주시하여 주기 바랍니다.